

강호인 장관, “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 의무화”

노원구 실증단지 방문...건설 산업 新성장동력으로 기대

-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(토) 서울 노원구 하계동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를 방문해 “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의 의무화를 목표로 고효율 에너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 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”고 밝혔다.
- 이 날 강 장관은 실험용(Mock-up) 주택에 적용된 외단열, 태양광 등 제로에너지 기술을 체험하며 “최초로 건설되는 제로에너지 주택 단지인 만큼 사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- 또한 강 장관은, “제로에너지 주택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주거비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면서
- “국토교통부의 7대 신산업인 제로에너지 빌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 에너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금지원 확대,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담완화와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”임을 밝혔다.
-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등 에너지절감형 주택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연구개발(R&D)사업으로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(명지대·노원구·SH 등)이 연구단으로 선정되어 2017년까지 121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제로에너지 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.

- 정부는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'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(고시)'를 '09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그와 함께 연구개발(R&D)를 통한 기술 개발과 공공임대주택 저에너지 주택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.

* '09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 : '09(15%) → '10(20%) → '12(30%) → '15(40%)

2016. 3. 19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□ **추진배경**

- 우리부 7대 신산업인 제로에너지 빌딩 기술이 적용된 R&D 실증 주택단지* 현장을 방문, 적용기술 및 추진상황 점검

* 121세대 규모 국민임대주택 조성중(정부출연금 180억원, '17.6 완공예정)

□ **방문개요**

- 일시 : '16.3.19(토) 10:30 ~ 12:45
- 장소 :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1-9(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 사업지)

□ **참석자**

- (국토부) 장관님, 기획조정실장, 주택토지실장, 주택정책관, 건축정책관, 대변인, 장관비서실장, 기획담당관, 주택건설공급과장, 녹색건축과장
- (진흥원) 건설사업본부장, 도시건축실장
- (관계자) 노원구 부구청장, 명지대 부총장, 명지대 산학협력단장, R&D 연구단장, KCC 이사 등

□ **세부일정(안)**

시 간	소요	내 용	비 고
10:30~11:00	30'	○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보고(실험용 주택 2층) - 실증단지 적용기술 및 공사진행 상황	
11:00~11:10	10'	○ 실험용주택 관람	
11:10~11:30	20'	○ 공사현장 시찰(도보 5분 이동시간 포함)	

※ 담당자: 주택건설공급과 양우성(010-4757-6844)